

96.5.15

학생폭력 상담소 운영

경찰, 민원처리 실명제·침단범죄 전담반 설치

내년부터 자동변속·경승용차로도 면허시험

치안서비스 세계화 방안

내년 1월부터 자동변속 차량과 배기량 800cc 이하 경승용차로도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파출소를 '지역치안서비스센터'로 운영해 일상 생활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불편 사항을 24시간 접수하고, 경찰서에 선 민원인에게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 따위를 상세하게 알려주는 '민원처리 실명제'가 실시된다.

7월부터는 집회 신고서를 낼 때 장소 사용 승낙서를 꼭 덧붙이도록 하고, 해상과 공중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14일 고도산업사회의 치안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치안서비스 세계화 방안'을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찰청 형사국에 컴퓨터 해킹이나 신용카드 위조, 흥뱅킹 사기 같은 침단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경찰수사연구소에 '지능사범 수사과정'을 열어 경제·환경사범 전담 수사요원을 기른다.

또 지방청별로 '학생폭력상담소'를 두어 상담과 법적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담전화 '1254'(이리오소)를 운영해 학원폭력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여정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스포츠센터 지하주차장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준을 현행 차량 1백대 이상에서 30대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내년부터 '뽕소니 추방'에 나서 모든 경찰서에 뽕소니 전담 부서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경찰서장과 지방경찰

청장의 승진심사권 범위를 각각 경사와 경정으로 확대하고, 승진 연한이 지났는데도 승진하지 못한 경우 상위 직급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주는 '대우공무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강문 기자

교통사고 다발 2백업체

상반기 안전진단 실시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대형 교통사고를 냈거나 교통사고를 많이 낸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6월13일까지 올해 상반기 교통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에 비해 2.3% 늘어남에 따라 진단 대상 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해 중앙 진단 63개 업체와 시·도 진단 1백40개 업체를 골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봉현 기자